

# “利他는 내 인생 최대의 힐링”



2010년 필리핀 한인총연합회장에 선출된 이원주 대표



이원주 대표는 법륜 스님과 함께 민다나오섬에 학교짓는 일외에 전통마을을 보존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공사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는 이원주 대표



이원주 대표가 민다나오섬 학교공사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길을 잃을까봐 미리 마중을 나온거예요. 정말 말은 안통했지만 큰 감동을 받았습시다.”

학교 사업이 순항만 거듭된 것은 아니었다. 학교를 짓다가 중단한 무슬림 지역도 있었다. 건축 자재 인수 때문에 오해가 생겼는데, 자신을 잘못은 인정 않고 의심하면서 문제를 삼았다. 하지만 이 대표는 힘들때보다는 보람 있을때가 더 많다고 털어놓는다.

“네 시간 넘게 정글을 헤치고 온 우리들을 위해 원주민들은 장작불 위에 삶은 카모테(고구마) 한 송과 야생 커피를 끓여 내놓습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접이지요. 이들에게 더 이상 내놓으려야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세 끼 모두 카모테로 해결하거든요. 이들도 쌀밥을 먹고 싶지만, 카모테 한 부대 지고 먼 길을 내려가 봐야 한 가족의 한 끼 먹을 쌀도 구하기 어렵기에 포기합니다. 삼나 무겉집을 벗겨서 이들이 하루에 버는 돈은 30페소. 우리 돈으로 7백~8백원에 불과합니다. 그 돈으로 여덟아홉이나 되는 식구들의 한 끼 먹을 쌀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생활은 궁핍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도 고구마 한쪽에 안분자족하는 이들을 지켜 보면서 또 자신들의 얼마되지 않은 식량마저 우리들에게 나눠주는 그들의 모습에서 가진 것이 많다고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큰 가르침을 받은 거지요. 한번은 여러 번 갔던 마을에서 쌀을 구해 놓은 적도 있었습니다. 밥이 나오기에 무슨 반찬이 나올까 하고 기다리는데, 원주민들이 교대로 방에 들어와 우리 얼굴 한 번 밥 한 번 쳐다보고 그냥 나가더군요. 1시간 지나서야 돌돌 굴러다니는 그 설익은 쌀밥이 식사대접의 전부란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도 비싼 쌀을 사려고 그런 시장에 나가 고구마를 팔았을 생각을 하면 어찌 곱잡지 않겠습니까?”

이 대표는 눈시울을 적셨던 감동의 순간이 또 있다고

들려왔다. “우리가 만들어준 학교의 학생들이 졸업 할 때입니다. 졸업생이 많이 나온 가나안 지역에 22살 먹은 졸업생이 있었어요. 16살에 입학 해 말이 초등학교 졸업이지 거의 나이만 따지면 대학생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졸업하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봉사자들이 모두 얼싸안고 기쁨과 보람의 눈물을 흘렸지요.”

원래 이원주 대표의 본업은 의류회사 사장이다. 경남 고성이 고향인 이 대표는 부산의 조광무역에 취직해, 1980년 해외법인 직원 선발에 지원한 게 필리핀과 인연을 맺는 계기가 됐다. 말단직 기계공으로 입사한 이 대표는 ‘배울 수 있는 건 모두 배우자’는 심정으로 와이셔츠 원단을 재단해 바느질하고, 포장해 실어 보내는 전 과정을 부서별로 찾아다니며 묻고 어겨너머로 배웠다. 성실함을 높이 평가받은 그는 마닐라 공장에 1년간 파견되는 기회를 얻었고, 이를 계기로 1983년 미국 의류회사로부터 필리핀 공장의 매니저를 맡아달라는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 다시 필리핀으로 왔다. 그는 3년 반이 지나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한국인 파트너와 둘이 소자본으로 여성의류 하청공장을 차렸다.

지난 30여년간 운영한 ‘코리아’의 ‘케이’와 ‘이원주’의 ‘리’를 합성해 사명을 지은 ‘케이리퍼션’서 여성의류를 만들어 버나나리퍼블릭, 플로 등 미국 유명 브랜드에 납품하며 필리핀서 손꼽히는 성공한 한인 기업인이 됐다. 현재는 기존 ‘케이리퍼션’을 정리하고 마닐라 인근에 종업원 1천여명을 거느린 2년전 새로 설립한 의류회사 ‘LHK creation’ 대표로 있다.

사업 초기 자본 부족으로 어려움도 많았다. 신용장을 받느라 1주일 동안 은행을 드나들며 통사정을 해야했다. 때로는 납기를 맞추려고 열흘간 밤샘작업을 하고서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었다. 큰 위기도 두 번씩이나 겪었다. 잘나가던 회사가 노조원들의 불법파업으로 폐업신청을

하고 소송에 휘말렸다. 2008년부터 불어닥친 주 수출국인 미국 금융위기 여파로 주문이 줄면서 또 한번의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이 대표는 사업을 하면서 거짓말과 변명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거짓말과 변명은 일시적 위기는 모면할 수 있어도 잘못은 또 다른 잘못을 낳기에 결국 발목을 잡는다는 평소 비즈니스 철학 때문이었다.

이렇게 자신이 맨손으로 기업을 일군 것처럼 이제는 전쟁과 가난으로 얼룩진 민다나오에 희망을 전하는 전령사가 되려한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아프면 치료받아야 하고 배고르면 먹어야 하잖아요. 또 아이들은 일단 배워야 합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그들보다 조금 나은 위치에 있으면 도울 뿐입니다. 남을 돕기 위해서는 돈도 물론 중요하합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열심히 벌으려고 노력했고 가치있게 마음 편히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아깝지 않게 썼고 앞으로도 죽을때까지 잘 회향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사실 이 대표의 봉사는 민다나오가 처음이 아니다. 이 대표는 민다나오를 알기 전인 1996년부터 필리핀 빈민을 돕는일에 앞장서 왔다. 피나투보 화산 재해를 입은 난민들을 비롯해 필리핀 대학·고교생에게 장학금도 주었다.

이렇게 보시행의 원을 세우고 이를 실천에 옮기며 사는 이 대표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행복론에 대해 들려 주었다. “행복이라는 것은 자신이 어떻게 느끼느냐의 문제입니다. 자꾸 불행할 요구 조건을 걸면 모든 것이 다 불행해집니다. 우리들이 행복하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런 행복한 마음을 갖는 것을 ‘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그 행복을 전파할 수 있으니까요. 민다나오 봉사 역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민다나오 지역민들에게 내가 더 감사한 일이지.”

김주일 기자 kimj4217@hyunbul.com

## 전법일기

### 나눔공동체 선우, 비상 꿈꾸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많은 인연들을 만나고, 그 인연 속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고, 그 경험 속에서 보람있고, 즐거웠던 것들을 나누려고한다. 그 까닭은 나눔이 갖는 의미가 남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나눔을 통해 기쁨은 배가 되고, 슬픔은 반이 된다는 것을 누구나 경험해서 알기 때문에 나눔의 가치는 고귀함 그 자체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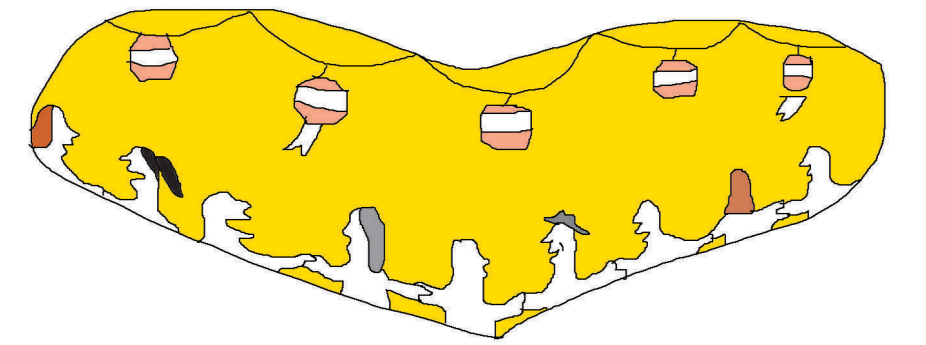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도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찾아볼 수 있다. 부처님의 고귀한 마음이라고 하면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비심’이라고 말씀들을 하신다. 왜 ‘자비심’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며, 가장 고귀한 마음일까?

‘사무량심(四無量心)’이라고 모두 들어

대한 피드백을 받아보았다. 그리고 나눔명상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불교방송(BBS)에서 ‘나눔명상’ 수업을, BTN에서 ‘나눔명상’에 대해 소개하게 되었다.

이로써 성불암에서 인연이 되어 그동안 함께 수행과 봉사를 해왔던 모임 ‘선우(禪友)’와 제자들의 모임인 ‘선우YB’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나눔명상’이 비로소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난 확신한다. 소중하지 않은 인연은 없다는 것을! 물론 내게 상처주고 아프게 하는 인연이 없었음리 만무하지만 이 인연 또한 매우 귀하다. 왜냐하면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견디는 방법과 그 어떤 상처도 치유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상처를 주는 인연도 귀한데 내 곁에서 도와주고 함께 동행해주는 인연은



그림·박구원

봤을 것이다. 이 ‘사무량심’을 범어(산스크리트어)로는 ‘브라흐마비하라’, 한역으로는 ‘범주(梵住)라고도 한다. 그 뜻은 ‘고귀한 곳에 머물’이다. 즉 ‘가장 고귀한 곳에 머무는 네가지 마음’이라고 해석해서도 좋고, ‘네가지의 마음으로 가장 고귀한 한 곳에 머물’이라고 하셔도 좋다. 핵심은 바로 네가지의 마음인 ‘사무량심’은 가장 고귀하고, 가장 고귀한 사람이 쓰는 마음이며, 가장 고귀한 곳으로 이끌어주는 마음인 것이다.

우리 불자님들께서 가장 고귀하게 생각하는 부처님의 마음인 ‘자비심’이 바로 사무량심 가운데 ‘자(慈) 무량심’과 ‘비(悲) 무량심’이다. 여기에 ‘희(喜) 무량심’과 ‘사(捨) 무량심’을 합치면 자(慈)·비(悲)·희(喜)·사(捨)의 ‘사무량심’이 된다.

자(慈)는 자애를, 비(悲)는 연민을, 희(喜)는 더불어 기뻐함을, 사(捨)는 내려놓음으로 평온과 평등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귀한 마음인 ‘사무량심’을 가지고 저는 ‘나눔명상(Sharing Meditation)’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이 프로그램을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학장인 ‘종호 스님’과 박사과정 수료 이상의 제자를 모임에서 발표하고 수행에

얼마나 귀하겠는가? 이처럼 귀한 인연이 바로 지금 내 곁에서 함께 해주고 있다. 바로 ‘선우’와 ‘선우YB’ 그리고 성불암을 찾아주시는 불자님들이시다. 귀한 인연이 되어 함께 해주셔도 좋고, ‘네가지의 마음으로 가장 고귀한 한 곳에 머물’이라고 하셔도 좋다. 핵심은 바로 네가지의 마음인 ‘사무량심’은 가장 고귀하고, 가장 고귀한 사람이 쓰는 마음이며, 가장 고귀한 곳으로 이끌어주는 마음인 것이다.

‘나눔공동체 선우’는 ‘나눔명상’을 통해 소외되어 있고, 힘들어 하고, 아파하는 이들을 보며 나 역시도 저렇게 아파했었음을 이해하면서 보듬어 안고, 괴롭고 힘든 상황을 함께 벗어나며 누구나 평등한 가치 속에서 행복해 질 수 있도록 마음을 나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려 한다.

난 믿는다. 간절해지면 결국 이루어진다는 것을! 원효스님께서도 “믿음이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 라고 믿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던가.



법륜 스님 (서울 성불암 주지)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시는

# 禪本寺

선본사 갓바위 부처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수행 정진하며  
좋은 부처님 법을 따라 우리 이웃들에게 더 많이 전해주시고  
내가 사는 사회 전체의 행복을 위해  
가장 먼저 스스로 서원을 세우길 바랍니다  
- 주지 성본 합장 -

#### 기도 및 불사안내

● 2015년 부처님오신날 연등불사

법당등(유리광전,대웅전,삼성각,극락전) 동참금 10만원

도랑등 동참금 5만원

길등 동참금 3만원

● 12지 석등불사 모연접수

● 경전불사 모연접수

대한불교조계종 직영사찰 선본사 갓바위

주소 경상북도 경산시 외촌면 갓바위로 699(대한리 587)  
전화 053-851-1868-9